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

2026. 9. 4.(금)

동해해수청, '26년 하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 강원권역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강원 동해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해상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설항로표지 146기에 대해 오는 9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항로표지법령에 따라 자가 사업 또는 공공업무를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우리 청 관내에는 동해시, 해양경찰서 등 38곳에서 운영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실태점검은 사설항로표지를 소유한 관내 기업·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점검을 통해 항로표지의 기능유지, 관리상태, 법령, 허가사항 이행 여부, 법정 예비품 보유 현황, 장비용품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소유자와 위탁관리사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설항로표지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는 동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최금성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최종찬 (033-520-6276)

